

ASEM 정상회의 조정국 기자회견 모두연설

존경하는 반하넨 총리,

동료 조정국 정상과 기자 여러분,

먼저 ASEM 동북아 조정국 정상으로서 금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핀란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975년 역사적인 헬싱키 회의를 통해서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탄생 시키고 동서 간 화해의 서막을 연 바로 이곳에서 ASEM 10주년을 맞이한 것은 무척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곳 헬싱키에서 시작된 유럽의 신뢰 구축과 통합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반하넨 핀란드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인도, 파키스탄, 몽골과 ASEAN 사무국의 ASEM 가입이 결정된 것은 ASEM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몽골·인도·파키스탄이 한·중·일 동북아 3국과 같은 그룹에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ASEM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화체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 협력의 강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상호간에 다양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역사적인 제6차 헬싱키 ASEM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땀을 흘리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